

artnow

Noblesse

Special:
Power of Women
City Now
Style & Art
Artists & People
Exhibition
Collector
Art in Life
SNS Now

ESPACE
LOUIS
VUITTON
SEOUL

FONDATION LOUIS VUITTON
LA COLLECTION



Alberto Giacometti, Grande Femme II (1960). Courtesy of the Fondation Louis Vuitton. © Succession Alberto Giacometti / Fondation Alberto et Annette Giacometti. © Adagp, Paris 2019. Photo: Marc Donaghe

ALBERTO GIACOMETTI 알베르토 자코메티

SELECTED WORKS FROM THE COLLECTION
컬렉션 소장품 전시

2019.10.31 _____ 2020.01.19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Espace Louis Vuitton Seoul)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54, 루이 비통 매점 서울 4층
관람 시간: 월요일 - 토요일 11:00 - 19:00, 일요일 12:00 - 19:00
무료 전시

세라 루커스

1

*Self Portrait with
Knickers, C-print,
120×81.5cm,
1994~2000*

2

*HARD NUD,
Cast Bronze with
Pink Patina,
Concrete Brick
Plinth,
35×20×21cm,
2012*





2

yBa의 주요 일원으로, 현대 아트 신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라 루커스. 그녀가 지난 10월 서울에서 <SARAH LUCAS: Supersensible, Works 1991-2012>전을 열었다. 아시아에서 연 첫 개인전으로, 예의 도발적이고 강렬한 설치 작품과 빼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화상을 걸었다. 전시 전후로 인터뷰를 청했다. 한국 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는 <아트나우>가 처음이다.

누가 세라 루커스를
불쌍 소년이라 말했나?

Sarah Lucas



1



2

세라 루커스

1980년대 말 이후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한 젊은 아티스트 그룹 yBa의 일원으로, 데이미언 허스트가 기획한 〈Freeze〉전을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7년 찰스 사치(Charles Saatchi)가 주최한 〈Sensation〉전을 필두로 여러 전시를 거치며 명성을 얻었다. 여성의 가슴이나 남성의 성기를 식탁, 의자 같은 가구에 배치하거나 머리가 없는 자화상 등을 통해 사회 속 고착화된 개념에 도전하는 것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왔다. 런던의 유명 갤러리 세디 콜스 HQ(Sadie Coles HQ)가 독립하며 전속 계약을 맺은 세라 루커스의 작품은 영국 테이트와 미국 MoMA, 프랑스龐피두 센터 등 세계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요즘은 어디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난 11월, 중국 베이징의 레드 브릭 아트 뮤지엄(Red Brick Art Museum)에서 대형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가 생활 30년 세월을 보여주는 회고전이었죠. 지금은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쉬면서 시차 적응 중이죠. 현재 저는 영국 동쪽에 위치한 서포크(Suffolk)에서 살고 있어요. 작업실은 유서 깊은 프램링엄(Framlingham)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고요.

얼마 전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한국이 저를 택했습니다. 사실 갤러리가 저를 택한 거죠. 아시아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은 저에게 다소 새로운 경험입니다. 여성 관객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아주 기쁩니다.

당신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yBa 일원인 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yBa에는 골드스미스 대학교 동기인 데이미언 허스트(Damien Hirst)를 비롯해 마크 퀸(Marc Quinn), 제이크 & 디노스 채프먼(Jake & Dinos Chapman) 형제 등이 속해 있죠.

yBa 일원과 함께하는 것은 즐거웠고, 같이 작업하는 만큼 힘이 됐습니다.

당신의 활동 초기 모습에서 오늘날 젊은 아티스트들을 떠올렸습니다. 1993년 yBa의 작가 트레이시 에민(Tracy Emin)과 함께 ‘더 숍(The Shop)’이란 공간을 열고 직접 제작한 옷이나 소품을 팔며 생활한 적이 있죠. 젊은 아티스트에게 1970~1980년대 당시 런던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런던뿐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게는 컴퓨터도 휴대폰도 없던 때입니다. 택시를 기다리면서 언제 올지, 오기는 할지, 지금 기다리는 이곳이 맞는 장소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실패’에 의해 결정되었어요. 심지어 편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하는 것까지도 그랬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기였죠.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은 새벽녘처럼 희미한데, 기억을 더듬어보면 찰스 디킨스 책에 나올 법한 런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물론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것이 바로 미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미래로 여기던 시대가 오늘날일까요? 아트뿐 아니라 영화와 소셜, SNS 등에서도 여성의 힘이 전과 달라진 지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당신의 작품은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도 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레몬으로 만든 여자 가슴이라든가 성기를 가린 생닭 등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섹슈얼하고, 또 때로 파괴적인 느낌을 줍니다. 처음부터 강렬한 것에 끌렸나요?

저는 특정 사물, 무생물, 옷차,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앉아 있는 자세와 같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어떠한 물체나 상황 속에서 늘 풍자적이고 도발적인 요소를 찾아냅니다. 자화상을 찍게 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나나를 먹고 있다가 갖고 있던 흑백필름이 담긴 카메라를 당시 남자친구(게리 휴. 1990년대 당시 많은 작품에 등장한다)에게 건네면서 “내가 이거 먹고 있는 모습 좀 찍어봐”라고 했어요. 그게 다예요. 이처럼 저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좋아합니다. 집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사회와 관련된 것들이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예술가에게 성(性)은 일반 대중과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소재일 것 같습니다. 작가 세계에서 당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자라는 사실과 여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위기를 겪습니다. 만약 위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자화상 속 당신의 모습을 보면 항상 독특하면서도 당당해 보여서 더 궁금합니다.

위기를 겪은 적은 많지만, 저는 제가 그다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별로 터프하지도 않고요. 그런 이미지는 제가 살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나중에 제 작업에도 이를 반영한 것이겠지요. 아마 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는 ‘세라 루커스라는 작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실제로 아는 사람만이 ‘세라 루커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작가라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작가 개개인마다 고유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1
Chicken Knickers,
C-type Print,
42×42cm, 1997

2
Concrete Boots 98~99,
Cast Concrete,
19.4×13.0×27.9cm,
1999

싶은지, 작업을 통해 뭘 얻고자 하는지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술가로서 풀어보고 싶은 과제나 좋아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나요?

좋아하는 것이 있죠. 저는 사람들을, 또 제 자신을 놀라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내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녀는 세라 루커스일 뿐 기존 사회의 잣대를 들이대며 여성 작가로 구분되는 것을 거부했다. 어쩌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기자의 '우문'에 작가는 모호한 '현답'을 던졌으리라.

이쯤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만나 대화하고 관찰해온 세디 콜스(Sadie Coles) 갤러리와 제이슨함 갤러리 등 아트 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며 그녀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다. 먼저, 수많은 포털의 정보는 세라 루커스를 yBa 일원 중 트레이시 에민과 함께 '2명의 불량 소녀'라고 지칭한다. 두 작가의 성별이 여성이고 또 다소 도발적인 작업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존하는 세라 루커스는 적어도 불량 소녀가 아니다. 1962년생인 그녀는 지금도 지인들에게 수줍은 소녀에 가깝다는 말을 듣는다.

평소 세라 루커스는 국악이나 세대와 상관없이 우정을 나눈 친구들을 작품에 참여시키고 오마주하길 즐긴다.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한 'I Scream Daddio'에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먼트를 책임지고 있는 세디 콜스의 몸을 직접 본떠 쓰기도 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곳에 살면서 철학서와 역사서를 읽는 데 매진한다. 독서와 단어에 대한 인식을 통해 끊임없이 단어의 이중성을 이용한 농담(words play)을 즐긴다. 그녀는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세 글자로 이뤄져 있다고 생각해 'dog'와 'mom' 등 세 글자로 이루어진 수많은 단어를 언제든 랩처럼 바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줄줄 외고 있다. 작품 이름과 주제도 그런 종의적 의미로 짓는다. 그녀가 즐겨 쓰는 소재인 여성의 가슴이 그렇다. 가슴을 뜻하는 영어 단어 bust는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사진가, 조각가, 설치미술가 등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세라 루커스의 작품은 언뜻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오브제를 사용하기에 작업하기 쉬워 보이지만, 각 작품은 치밀한 계산 아래 탄생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 휠과 스타킹을 연결한 'Great Exhibition'(2006) 같은 작품을 전시할 때는 반드시 영국 마트에서 직접 구입한 스타킹을 여분으로 보내준다고 한다. 마치 반드시 그것이어야만 한다는 듯이!

세라 루커스의 작품은 일상 속 어떤 소재를 쓰더라도 그녀만의 언어와 배치 방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세라 루커스와 그녀의 작품을 우리의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여성의 가슴과 남성의 성기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고 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여성으로서 강한 주장을 펼쳤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최근 수년간 세라 루커스는 여성과 신체를 쉽게 대상화하는 세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소수자의 평등에 관심이 높은 현시대 사람들이 그녀에게 더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며 드라마틱한 메시지를 전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녀는 이번 인터뷰처럼 좀처럼 답하지 않는다.

1970년대에 10대를 보낸 '여성'이기에, 일찌감치 담배를 피웠다는 고백과 남자처럼 청바지에 워커를 신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중이 그녀를 선불리 '불량 소녀'로 정의해버린 건 아닐까? 예컨대 지금도 구글을 비롯한 위키 미디어, 여느 아트 애호가들의 블로그에 이르기까지 그녀에 대한 설명에는 담배를 끊었다고 나온다. 그럼, 그것만이라도 진실일까? 적어도 지난 11월 열린 베이징 전시에서는 영국인답게 담배 케이스에서 담배를 꺼내 자신의 팬에게 직접 말아 주고 같이 피웠다고 한 관계자가 말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작가의 작은 습관조차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알기가 힘들다.

세라 루커스는 바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 세상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껏 그래왔듯이 시대에 필요한 근거를 들이대며 그녀의 작품을 해석할 것이다. 세라 루커스는 매일 숨 쉬듯 유머를 즐기고, 대중의 추측과 평가에 무심한 사람이다. 데이미언 허스트의 개인 수장고를 비롯해 유수의 박물관에서 자신의 작품을 수집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먹고살 수 있게 된 것이 신기하다고 지인들에게 말하는 순수한 면이 있다. 이런 의연한 태도야말로 그녀가 당대 현대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로 불리는 이유가 아닐는지. 그 뜻을 받들어 우리 역시 작품에 대한 깊은 설명을 부탁하지 않기로 했다. 세라 루커스는 세라 루커스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작품을 정의하면 된다. 그녀가 세상에 대해 풀려 있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이다.

1
Great Exhibition,
Tights, Chair,
Bicycle Wheel,
75×44×111cm,
2006
2
Wanker, Fiberglass,
Spring on Wood,
31×16×58.5cm,
1999



1

2





How have you been? Tell us about your recent show, event or even a personal episode. Where are you staying and working these days?

I just had a huge show open in Beijing at the Red Brick Art Museum. A survey covering 30 years. Back in England now and recovering and adjusting to the time difference. I live in Suffolk in the east of England. I have a studio in the historic town of Framlingham.

You recently had your first solo show in Asia in Korea. Was there a particular reason you chose Korea out of many other countries in Asia? I also want to know how satisfied you were with your choice.

Korea chose me. Actually Gallery chose me. They must be very astute. I am very delighted to be well-received by a broader scope of Korean audience, including women.

When one googles your name, the first thing that comes up is that you are one of yBa artists. Members of yBa includes your Goldsmiths' colleague Damien Hirst, Marc Quinn, Jake and Dinos Chapman, What significance does that have to you?

It was great fun being a gang. Strength in numbers.

I could picture contemporary young artists from your early works. In 1993, there was a time when you ran "The Shop" with Tracey Emin - selling old clothes and little props inside the installation. I wonder what the society of London in the 1970s and 1980s felt like to you when you were still young and starting out in your career.

It was so different then, London, and everywhere. No computers or phones. It was a bit like waiting for a taxi and having no idea whether one would come along. Wondering if you were in the right spot. A lot of waiting involved.

Everything was an act of faith, even arranging to meet someone in a pub. Very exciting to plunge into. My memories from that time are in a kind of twilight. Images of London like something out of Dickens. Of course nobody knows the future - even now. It's the nature of the future not to know it.

I feel the rising power of women not only in art but also in movies, novels and the social media. Do you agree?

Yes and no.

I see it that your artworks particularly exhibit some keywords that still strike the minds of younger generation of today.

Your works such as lemons as female breasts and a plucked chicken in place of a woman's genitalia are very humorous, sexual and sometimes destructive. Even those who do not visit museums often would be quickly drawn to them. Were you attracted to strong images from the start?

I suppose I always see the innuendo and provocation in things, inanimate objects, collars, the way people sit or dress. It was an accident, I was eating a banana one day and I had a black and white film in my camera and I said to my boyfriend, "Take a picture of me eating this". I like ordinary things. Domestic stuff. Social stuff. That's my inspiration.

Sex probably means a different thing to an artist than it does to the rest of us. In the art world, did you ever feel that being a woman constrained your ability? Or did it ever empower you? I am curious about your thoughts on that or any related episode that you h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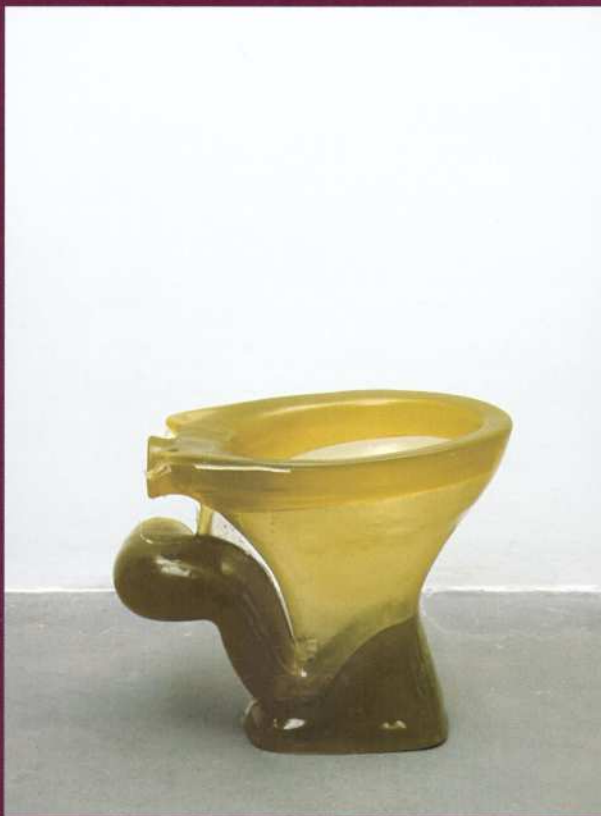
I did feel at a disadvantage, as a woman, then I decided to mobilise being a woman, and a woman's situation and use it as a positive.

Everyone has a crisis at one time or another. In your career, have you ever encountered someone or something that made you weak or intimidated you? If so, how did you deal with it? Because, you always strike such a unique and commanding pose in your photos.

Many times in life. I don't always feel tough. Actually I'm not

1
Spirit of Ewe,
Tights, Fluff,
Merino Sheep
Skull, Stone,
Concrete Blocks,
99 × 20 × 26cm,
2011

2
The Old in Out,
Cast Polyurethane
Resin,
41.9 × 50.8 × 36.8cm,
1998



particularly tough. I cultivated that image as a form of protection. In life - before I used it in art. I imagine lots of people have ideas about who Sarah Lucas the artist is, people I don't know. Only people I know have an idea who Sarah Lucas the citizen is.

What do you think today's artist needs most? Alternatively, you can say what you hate most.

All artists are different. They need to work out what they want. Who they think they are or want to be.

What are your plans as an artist? Is there a challenge you would like to solve as an artist?

There are certainly things that I adore. I like to surprise people. And myself.

To put the long story short, she rejected to be categorized as a "female artist" under conventional judgements. She was just but a person named Sarah Lucas. Perhaps this was a smart answer of her to offer, given my interview questionnaire that sought for more details.

I also wanted to talk to people at the art scene, such as Sadie Coles HQ and Jason Haam, those who have spoken to and built relationships with Lucas in person over time. In fact, there were a number of misunderstandings on Lucas that come across me, as I prepared this interview. Firstly, search engine results suggest that Sarah Lucas is one of the "two bad girls", along with Tracey Emin, and a member to the yBa. It is true that two artists are women, and have produced some provocative artworks, but Sarah Lucas is far from being a "bad girl", to say the least. Lucas was born in 1962, and she still gets that she looks like a shy girl.

Sarah Lucas occasionally invites her friends to be a part of her works, and creates homages,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s. An artwork submitted to the Venice Biennale 2015, titled "I Scream Daddio", was made after the body of Sadie Coles, her good friend and management gallery. Lucas lives in a remote place where there are a few people around, and enjoys her time reading philosophy and history books. Based on a vast pool of vocabulary from readings, Lucas likes to engage in pun and words plays. It is her belief that the most beautiful creatures on earth are actually made of three letters, such as "dog", and "mom". Titles and theme of her works also carry dual meanings. Female bust, is a case in point. Bust can also mean it's completely ruined, when used as "busted". The world of Lucas is hard to be confined into photograph, sculpture, or installation arts. Her artworks may seem like ordinary objets, but in fact, they are end-results of a meticulous planning. For instance, when "Great Exhibition" (2006) is on display, she would also send extra pairs of stockings purchased from Tesco. It has to be that precise!

1
지난 10월, 서울 제이슨 함
갤러리에서 열린
<SARAH LUCAS:
Supersensible,
Works 1991-2012>
전시 풍경. 왼쪽부터
'Five Lists' (1991),
'Get off Your Horse
and Drink Your
Milk' (1994),
'Untitled' (2000)가
보인다.

2
Loungers #2,
Tights, Fluff, Plastic
Bucket, Plastic
Lounger,
199 × 62.5 × 55.5cm,
2011

Sarah Lucas also brings in her own language and layout styles to her works, no matter what objets they may be. This is one reason why we should not prematurely judge her works with our viewpoints. Would it be fair to say that a ridiculous exhibit of a bust and penis would mean her feminist criticism put on a male-dominant world. In recent years, she has not specified her personal opinions on the world that objectifies women and body parts. While contemporary viewers have hopes that Lucas to deliver a much more dramatic message that supports women's position in the society and equal rights for minority, the artist keeps silence, as is her usual.

As a woman having spent her teens in 1970s, perhaps the "bad girl" title came to be, just because she was a smoker and wore jeans on walker shoes. Some search results, ranging from Google, wiki-media, to an art lover's blog, description on Lucas even states that she has now quit smoking. Fine, would that be true then? During the Beijing show in November, an insider said that Lucas rolled out tobacco leaves from her tin case and shared it with her fan. As such, there are limits to which we can gather information on an artist's minor habits.

Sarah Lucas understands this point exactly; that the world will make judgements on her regardless of her intentions. Her works will continue to be interpreted with supporting grounds as required by the time. Lucas is one artist who breathes humor in and out, and who is indifferent to public's assumptions and assessments. Her works are collected by Damien Hirst and many other museums, and yet Lucas confesses to her friends that it is a magical thing that she is able to make living out of art, doing what she loves. Perhaps such detached attitude is what makes her a key modern artist. Respecting her thoughts, we decided to stop inquiring for more details on her artworks. Sarah Lucas serves to be a "Sarah Lucas", and it is up to the rest of us to interpret. This is the point of misunderstanding where the artist attempted to correct.

